

# 살다 vs 지내다

살아 있다, 거주하다 · 사이좋게 지내다, 그럭저럭 지내다, (시간을) 보내다

살다 는 넓은 의미의 ‘사는 것’으로, 살아 있는 것과 어딘가에 집을 두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. 지내다 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말합니다.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,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, 명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등에 씁니다.

## ■ 한눈에 비교

| 단어  | 핵심 의미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ニュアンス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주 쓰는 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살다  | 살다, 살아 있다, 거주하다                  | 사는 곳, 얼마나 오래 사는지, 생계를 꾸리는 것. | N에(서) 살다<br>서울에 살다 / 혼자 살다       |
| 지내다 | 사이좋게 지내다, 그럭저럭 지내다, (시간·명절을) 보내다 | 일상의 상태와 인간관계, 일상적인 머무름.      | 잘 지내다<br>N와/과 친하게 지내다 / N을/를 지내다 |

## ■ 차이점

- “잘 지냈어요?”는 지내다입니다. 잘 지냈어요? ○ / 잘 살았어요? △. 안부를 물을 때 ‘사는 것’으로 생각해서 살다를 고르는 학습자가 많지만, 살다. 잘 살다 는 보통 넉넉하게 산다, 잘산다는 뜻입니다: 잘 사는 나라 (부유한 나라).
- 사는 곳은 살다입니다. 서울에 살아요 (서울에 삽니다) ○. 서울에서 지내요 ○이지만 ‘(당분간) 서울에 머물고 있다’는 뜻일 뿐입니다. 사는 곳을 말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: 살다.
- 인간관계와 명절에는 지내다를 씁니다. 친하게 지내다 (친하게 지내다), 사이 좋게 지내다 (사이좋게 지내다): 친구랑 친하게 살아요 ×. 명절이나 의례: 추석을 잘 지냈어요 (추석을 잘 보냈습니다), 제사를 지내다 (제사를 지내다).

| 문장                         | 살다 | 지내다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|
| 저는 지금 부산에 ____.            | ◎  | ×   |
| 오랜만이에요. 그동안 잘 ____?        | △  | ◎   |
| 옆집 사람들과 사이좋게 ____ 있어요.     | ×  | ◎   |
| 우리 할아버지는 백 살까지 ____.       | ◎  | ×   |
| 방학 동안 시골 할머니 댁에서 즐겁게 ____. | △  | ◎   |

◎ 자연스러움 ○ 가능 △ 어색함 × 틀림

## ■ 한 걸음 더

어떤 곳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말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: -(으)ㄴ 지: 한국에 산 지 3년 됐어요 (한국에 산 지 3년 됐습니다). 계속되는 상태를 말할 때 -고 있다는 두 단어 모두와 함께 쓸 수 있습니다: 혼자 살고 있어요, 잘 지내고 있어요.

## ■ 연습 문제

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세요: 살다, 지내다

1. 부모님은 지금 제주도에 \_\_\_\_.

정답 사세요 — 사는 곳: 살다 (높임말 사세요).

2. 선생님, 그동안 잘 \_\_\_\_?

정답 지내셨어요 — 안부를 물을 때: 잘 지내다.

3. 사람은 물 없이는 \_\_\_\_ 수 없어요.

정답 살 — 살아 있는 것은 살다입니다.

4. 새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\_\_\_\_ 있어요.

정답 지내고 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: 사이좋게 지내다.

5. 이번 설날은 어떻게 \_\_\_\_?

정답 지냈어요 — 명절을 보내는 것은 명절을 지내다입니다.

## ■ 예문

1 대학교 때부터 혼자 살고 있어요.

2 고양이는 보통 15년쯤 살아요.

3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?

4 회사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요.

5 이번 추석은 가족들과 조용히 지냈어요.

6 한국에 산 지 3년이 됐지만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.

## ■ 자주 하는 실수

× 그동안 잘 살았어요?

○ 그동안 잘 지냈어요?

“잘 지냈어요?”가 안부 인사입니다. 잘 살았어요?라고 하면 인생을 잘 살았는지, 경제적으로 잘 살았는지를 묻는 것처럼 들립니다.

× 저는 지금 서울에서 지내요.

○ 저는 지금 서울에 살아요.

사는 곳을 말할 때는 살다를 씁니다. 지내다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느낌입니다.

× 친구하고 친하게 살아요.

○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요.

누군가와 잘 어울리는 것은 친하게/사이좋게 지내다이며, 살다가 아닙니다.